

‘스무살’ 통영음악제 공연 온라인으로 본다

4월 3일까지 유튜브 생중계

피아노 박채영·베이스 연광철 등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로 알려진 2022 통영국제음악제(TIMF)가 지난 25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막했다.

올해 20돌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과 그의 음악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윤이상음악제로 출발해 지난 20년간 발전을 거듭하며 아시아 대표 음악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양성 속의 비전(Vision in Diversity)’을 주제로 오는 4월3일까지 열린다. 이번 음악제의 모든 공연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작곡가 진은숙을 새 예술감독으로 맞이해 사회에서 다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음악과 더불어 성찰하며 고전과 낭만, 현대음악으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과 폴란드 영화 ‘디 오케스트라’ 상연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29일 오후 6시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는 브람스, 드보르작, 무소르그스키 등의 곡을 들려주며, 첼리스트 트롤스 피르크는 같은날 밤 9시

슈만의 ‘환상 소품’, 드뷔시 ‘헬로 소나타 D단조’ 등을 연주한다.

‘세병관 콘서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31일(오후 4시) 열리며 ‘산유화’, ‘다시 부는 바람, 유산가’, 민요 ‘닐리아’, ‘군밤타령’, ‘춘향가’ 중 ‘어서출두’ 등을 선보인다.

이밖에 KBS교향악단 & 김유빈(31일 오후 6시), 박채영 피아노 리사이틀(4월2일 오전 11시),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4월2일 오후 3시),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4월2일 오후 7시), 라서 색소폰 콰르텟(4월2일 밤 9시), 스페틀린 루세브 & 테디 파파브라미(4월3일 오전 11시) 등도 만날 수 있다.

폐막공연(4월3일 오후 3시)에서는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마르쿠스 슈텐츠 지휘로 앤드루 노먼의 2008년 작품 ‘풀러나다’(Unstuck)를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이며 브루크너 ‘교향곡 7번’도 들려준다.

김재연 고려대 다양성위원장이자 심리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다양성 코트 콘서트’는 4월1일(오후 4시) 열리며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진은숙 음악감독 등이 참여한다. 같은날 밤 9시 콘서트를 로비에서는 폴란드 영화감독이자 비디오 아티스트 즈비그니에프 리프친스키의 영화 ‘디 오케스트라’를 상영한다. 문의 055-650-0400.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여성·비백인·퀴어 장애인...소수자 아우른 오스카

작품상 선 헤이더 ‘코다’

감독상엔 제인 캠피온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 위주’로 비판 받던 아카데미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에서는 여성과 비백인, 성 소수자와 장애인을 모두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무대로 불러올리며 다양한 소수자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지난해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에 이어 다시 한번 여성 감독의 작품인 ‘코다’에 돌아갔다.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허트 로커’(2008)와 ‘노매드랜드’에 이어 세 번째다.

‘코다’를 연출한 선 헤이더 감독은 농인 가족을 연기하는 농인 배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수어를 배우기도 했다.

농인 캐릭터인 주인공 루비의 가족은 모두 농인 배우들이 연기했고, 루비의 아빠 프랭크를 연기한 트로이 코처는 영국 아카데미, 배우조합상, 크리틱스초이스어워드 남우조연상을 휩쓸고 오스카 트로피까지 품에 안았다. 농인 캐릭터를 연기한 농인 배우의 오스카 수상은 ‘작은 신의 아이들’(1986)의 말리 매들린 이후 코처가 두 번째다. 감독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도 새 기록을



여우주연상 제시카 채스테인.



남우주연상 윌 스미스.

했다.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두 번 오른 유일한 여성 감독이자, 캐스린 비글로, 클로이 자오에 이어 감독상을 받은 세 번째 여성이 됐다. 캠피온 감독은 ‘피아노’로 각본상을 받은 이후 28년 만에 두 번째 오스카 트로피를 안았다.

‘킹 리처드’에서 비너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를 역사상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길러낸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를 연기한 윌 스미스는 ‘알리’,

‘행복을 찾아서’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남우주연상을 받은 역대 다섯 번째 흑인 배우다.

‘타미 페이의 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제시카 채스테인은 지난해 ‘노매드랜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에 이어 자신이 제작자로 참여한 영화로 주연상을 받은 두 번째 여성 배우가 됐다. /연합뉴스

아카데미 시상 나선 윤여정, 수어로 청각장애 수상자 호명

남우조연상 코처 시상

수어 수상소감 때 트로피 들어줘

“The Oscar goes to...”(오스카 수상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윤여정은 이렇게 말한 뒤 잠시 숨을 내쉬고 양손을 움직여 수어를 하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 트로이 코처다. 본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그를 배려해 능숙하지는 않지만 수어로 호명한 것이다.

코처를 무대로 부른 윤여정은 그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내내 감격에 찬 표정으로 축하했다.

양손을 이용해 수어를 해야 하는 코처를 위해 소감을 발언하는 동안 트로피를 대신 받아 들어주기도 했다. 코처는 윤여정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객석에 앉은 참석자들 역시 박수 대신 양손을 들어 제자리에서 흔드는 수어로 수상을 축하했다.

코처는 영화 ‘코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 프랭크 역할을 맡아 생애 처음으로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일찌감치 수상 1순위로 꼽혀온 그는 ‘파워 오브 도그’ 제시 플레먼스, ‘벨파스트’ 시아란 힌즈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트로피를 가져갔다.

윤여정은 전년도 수상자를 시상자로 초대하는 아카데미 관례에 따라 올해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나서기 전 레드카펫을 통해 시상식장에 입장했다.



27일(현지시간)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청각 장애인 트로이 코처(53·왼쪽)가 윤여정이 건넨 남우조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갈한 올림머리와 검은색 드레스 차림을 한 그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미의 파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등장했다.

그는 시상에 앞서 “어머니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작년에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걸 보고 불평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가 읽어야 할) 후보자들 이름을 보니 이름 발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발음 실수에 대해 미리 사과드린다”고 하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 출연한 한국 배우 박유림, 진대연, 안휘태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 성인지 통계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2021 광주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주 성인지 통계’는 광주여성가족과 관련한 기초통계를 지속·종합적으로 구축해 광주시 여성가족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 성인지 통계’는 2011년 첫 발간 이후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6번째로 ‘2021 광주 성인지 통계’가 발간됐다.

이번 ‘2021 광주 성인지 통계’는 젠더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여성정책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아동·청소년 분야를 추가해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으며 그 외 인구분야, 경제활동분야, 건강분야, 안전분야 등에서 지표의 지속적 생산가능성 및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사회 지표를 추가했다.

자료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22.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